

사랑의 빛진 자

로마서 13:8-10

들어가는 말

빛진 자로 사는 우리들..

목사 안수 예배 때에, 감독이 안수식을 거행하기 전에, 질문을 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문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온전한 삶을 추구하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등등, 그런데, 그 중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목회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빚을 지었습니까?” 물론, “아니요”가 정답입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야지, 안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목사 안수 후보자들은, 빚이 많은 사람들이라, “예”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줍게, 민망하지만, 비시시 웃으면서, “아니요” 라고 합니다. 감독도 알고, 목사 안수 후보자도 알고, 안수 예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빚을 지지 않고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빚을 지고 삽니다.

미국 사회에서 크리딧 카드 제도를 없애버리면, 경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제 앞으로 크리딧카드가 세개가 도착한 것이 기억납니다. 얼마 전에 들은 뉴스인데, 미국 성인 한명당 평균 4 개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63 퍼센트는 신용카드 회사에게 갚아야 할 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말씀에 보며는 빚을 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무 빚도 지지 말라. Owe no one anything. 다른 성경에 보면, 영어로, Pay all your debts. 모든 빚을 갚아라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빚은 지라고 하십니다. 한 가지 빚은 다 갚지 말고 지고 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계속, 영원히 갚아야 할 빚입니다.

--

먼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창조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기를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생일 축하 모임을 가졌는데,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일 뿐 아니라, 매일 매일, 이렇게 살아가도록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일 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찬송합니다. 생명 뿐 만이 아니라, 모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지고 삽니다. 무슨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가족을 이루어 사는 복, 친구들 이웃들과 어울려 사는 복, 그리고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는 복,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사는 복. 함께 예배 드리며 사는 복. 매일 매일 허락해 주시는 양식. 일터 주시고, 생계 유지를 하고,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복. 일, 노동 후에 쉬를 갖는 복. 은퇴의 삶을 살아가는 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제공해 주시는 복입니다.

요즘 일일 일장, 함께 성경 한장씩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복 중의 복은,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조건없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해 졌습니다. 그분의 삶과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특히,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만났습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여, 우리는 하나님 사랑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빛진 사랑을 갚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질문에, 요한 일서 5 장 3 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풀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 수요일에 읽은 잠언 4 장에서, 4 장 20 절- 22 절 “내 아들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어라, 그것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경청하고, 간직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19:10)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가만히 놔 두시지, 이게 해라 저게 해라, 귀찮게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발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벌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러 나와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우리 믿는 자들의 생활의 규범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는 설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소중한 계명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지키는 계명이 아닙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야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 봅시다.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2.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첫 4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꼭 지켜야 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있기에, 이제, 이 계명을 기쁘게 지킵니다. 사랑하기에, 여호와 한 분 만을 섬기며, 사랑하기에 형상을 만들지 않고, 사랑하기에 망령되게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안식일, 주일, 하루를 온전히 안식하며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생명 존중하여 살인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들에게 악을 끼치지 않아,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 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 장 10 절)

하나님 사랑에 감사 감격 감동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동과 삶을 엮어진다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에게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웃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우리들은, 이웃들에게도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신 사랑에 빛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엄청난 아낌없이 퍼 부어 주시는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일서 4 장 2--21 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할지니라.”

요한 복음 13 장 34-35 절에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의 이웃들을 위해서 살라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은 대학들이, 많은 병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워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래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보며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셨습니다. (롬 13:8) 남을 사랑하는 자, 곧 이웃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게 됩니다.

이웃은 누구입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만이 내 이웃이 아닙니다. 사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이웃입니다. 남편도 이웃입니다. 부모도 이웃입니다. 자식도 이웃입니다. 친구도 이웃입니다. 원수도 이웃입니다. 이방인도 이웃입니다. 멀리 사는 이웃도 있고 가까이 사는 이웃도 있습니다.

이웃 사랑, 남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부부 사랑, 가족 사랑, 자식 사랑, 부모 사랑, 친구 사랑, 원수 사랑 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사랑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바울도,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에, 로마인들, 고린도인들, 갈라디아인들, 에베소인들 골로새인들 모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태생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종교가 다른 사람들도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피부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인 이 세상이 황폐해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 산, 바다, 숲, 나무들, 그리고 동물들, 자연 사랑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 사랑 중의 하나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랑하여야 합니까? 많은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권고한 바울의 말씀으로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 장 1-2 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 장 32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요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에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웃을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본받아,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러시아 문호이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레오 톨스토이 이야기 하나 나눕니다.

톨스토이가 하루는 레닌그라드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 거리에 나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지 한 사람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이 때, 거지가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하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동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거지의 두 손을 자기의 두 손으로 잡으면서 말하기를, “이거 어떻습니까, 형제여. 돈이 한푼도 없네요.” 거지의 얼굴이 밝게 빛나면서, 웃으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형제라고 불러 주었습니다.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톨스토이는 집으로 급하게 달려가서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그 거지는 죽어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소가 잔잔히 남아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진정 사랑에 빛진 자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자로서, 이웃에게 사랑을 빛진 자로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한자로, 사람 인 자가 있습니다. 사람 인 자가, 나무 막대기 두개 세워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명이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뜻으로, 유분투 라는 아프리카 격언이 있습니다. I am because of you.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아무 가족도, 아무 민족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살아갈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한발자국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섬기듯이 서로 섬겨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듯이, 서로 용서하여라.

오늘 성만찬을 함께 나누며, 다시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만찬 후에, 교회가 함께 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늘 매월 첫째 주일, 성만찬을 나눈 후에 결단의 기도 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이 땅에 나아가서,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남들을 위해서 내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 하루를 맞이하면서, 드리는 아침 기도가 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남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내어 주는 길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